조선일보 - 1930. 07. 29/ 4면/ 1단

哲學上으로 본 生存의 意義 (一)

哲學의 定義와 實在 探究의 形式

韓稚振

一. 生存의 批判

『풀레토[플라톤]』는 말하기를 哲學은 驚異에서 생기고 哲學者는 眞理의 愛好者라 하엿다. 卽 알기를 조화하고 뭇기를 조화하는 사람이 哲學者이다. 그는 萬物의 實在와 意義를 愛知코저 한다.

이러케 하자면 事物의 眞과 僞, 正과 誤를 分別하는 好奇心과 批判이 必要하다. 이 事物의 是非曲直을 分別할 줄 아는 것이 곳 哲學의 骨子이다. 이럼으로 『풀레토』는 말하기를 家犬이 自己의 主人을 알고 꼬리를 치며 外來人과 分別하여 오는 行動을 하는 以上 그 犬은 實로 哲學的이라 하엿다.

哲人은 探偵者와 가티 大槪 事物의 『有하여야 할 것』보다 只今 『有한 것』을 알기에 努力한다. 웨 이것은 이러코 저것은 저런가 하는 現實의 存在原因을 理解하고 說明하려 한다. 이럼으로 哲學 硏究者는 엇더한 生存現象에 對하여서든지 그 旣爲的 理由를 알냐고 探求한다. 例하면 何故로 世上萬事가 只今의 貌樣으로 생기어졋스며 그 趨向은 무엇인가 하는 理由를 說明하려 하는 이 모든 事實을 合理的으로 前後에 矛盾이 업서[시] 說明하려는 것이니 이 點에 잇서서 哲學은 다른 特殊科學들과 相異한 것이다. 哲學은 驚異에서 發生하엿다 함은 上說과 갓거니와 驚異란 것은 平常한 것보다 非常한 것을 意味하엿다. 사람이 이 世上에서 生活하는 가운데 平常을 써난 엇던 非凡한 生活의 情勢가 究起할 쌔에 사람은 그 變事의 性質이며 起源을 探知하랴는 好奇心과 驚異感이 생기는 것이다. 『이것은 무엇인가』, 『엇지하면 조흘가』하는質問이 곳 哲學 作用의 出發이다. 이럼으로 哲學은 大體로 生存의 批判이다. 旣存 習慣에 對한 批判이다. 『쎄임스』의 말과 가티 頑固스러운 質問을 조화하는 者가 哲學者이다. 이 生存의 批判은 그 批判者의 性格과 程度에 依하야 各種各樣일 것은 疑心 업다. 野蠻 未開한 사람의 神話的 形式에서 現代文明人의 合理的, 組織的 形式의 科學的 哲學이 잇다. 그러나 天變地異와 生

存問題에 對한 說明이 斷片的 神話이든지 統一的 哲學이든지 다 생각잇는 사람의 批判的 産物이다. 이 點에 잇서서 宗敎나 科學이나 哲學은 다 同一한 目的을 가젓스니 곳 生活에 對한 批判이다.

二. 實在 探究의 航海

사람은 自然環境과 調節하여야 生存할 수 잇는 까닭에 무엇보다 먼저 客觀的 世界를 알냐고 하엿다. 이리하야 世界論은 歷史的으로 認識論보다 먼저 始作되엿다. 이 世界 萬象은 다 무엇인가? 이 世界 萬物은 엇더케 起源하엿스며 엇더케 變化하는가? 이 世界에는 그 存在 目的이 잇는가? 누가 世界를 만드럿스며 웨 만드럿는가? 이러한 問題는 宇宙論(Cosmology)이 取扱할 事項이다. 그러나 이 宇宙 萬象은 무엇으로 되엇는가? 그 根本的 構成 本質은 무엇인가? 이러한 問題는 只今 論及하려는 形而上學 혹은 本體論(Metaphysics, ontology)의 探究 事項이다.

普通人에게 이 世界의 實在는 무엇인가를 무르면 그는 對答하기를 우리가 日常 보고 듯고 만지고 내음새 마틀 수 잇는 種種 雜多한 物的 個體의 集合이 自然世界의 實在라 할 것이다. 그러나 이 素朴한 實在觀은 純全히 唯物的은 아니니, 웨 그러냐 하면 古代부터 사람들은 그 環境의 事物을 生物과 無生物로 區別하엿기 때문이다. 生物은 外界의 行動이 업서도 홀로 起居動作하면 무슨 目的이 잇는 것처럼 環境과 適應하는 行動을 하고 잇다. 그러나 生物은 아마 그 內部에 무슨 活力이 잇서서 自存 自動하는 것이라고 推測하게 되엿다. 無生物은 그와 反對로 外界의 行動을 밧지 안코는 運動하지 못하며 한번 運動을 始作하면 外界의 障碍가 잇슬 때까지는 그대로 運動하는 것을 알 수 잇스니, 이는 無生物의 內部에는 아모런 活力이 업는 까닭이라 推測하엿다.

이 兩種 現象은 잘 때와 죽을 때에 顯著하다. 우리가 잘 때에 이 活力은 臨時로 肉體에서 나아와 다니다가 다시 드러오나, 죽을 때에는 永久히 肉體를 써나고 만다는 것이다. 이 活力은 呼吸과 가튼 것으로 肉體를 써나서도 홀로 存在할 수 잇는 非物質的 個體이다. 原始人은 이 內部的 活力을 靈魂이라 하얏스니 이는 어느 民族을 勿論하고 □□한 觀念이다.

이리하야 古代부터 이 宇宙를 肉體界와 靈界로 二分 하얏다. 그러나 靈肉界의 區別은 絶對的이 아니엇스니 우리 肉體內에 뿐 아니라 其他 萬物中에도 留宿한다 하엿다. 즉 靈魂은 一定한 場所를 点領하는 엇던 形態의 存在이다. 肉體로 말하드라도 死後에 靈魂을 가젓다고 看做하얏다. 屍體를 무서워하며 그 압헤 飮食을 갓다 놋는 것 가튼 것은 다 靈魂이 업는 死體도 一個

萬物의 性質을 가졌다는 것을 指示한다. 이럼으로 古代人의 靈肉二元觀은 分明한 것이 아니라 萬物 內에는 다 靈魂이 잇다는 幼稚한 精靈觀(Animism)에 不過하다. 人類의 思索 能力이 發達함을 싸라서 以上과 가튼 素朴한 事物觀에 滿足하지 안코 宇宙의 一切 現象을 總括的으로 說明할 根本 原理를 發見하려 하엿다. 一切 流轉變化의 根本法은 무엇인가? 비록 이 宇宙는 千態萬象이나 그 根源에 잇서서는 單一 原理 혹은 法則에 起因하엿다 한다. 이 說明은 一元論이다. 이 宇宙의 本質은 서로 對立한 二個 原理 혹은 實體로 成立되엿다는 見地는 二元論이다. 그러나 이 宇宙는 二個 以上의 根本的 實體로 形成되엿다 하는 見地는 多元論이다.